

News

尹정부 금융규제 완화 기조... 소비자보호·부채관리 집중

헤럴드경제

윤석열 정부, 금융 지원 확대와 적절한 가계 부채 관리 속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 소상공인 대출 금리 부담 낮추고 상황 일정 늘리며 과잉 부채 감소 집중
9월 말 예정인 소상공인 기준 대출 만기를 올해 말로 추가 연장...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예정

중금리대출 조이는 은행들... 중신용자, 2금융권 내몰리나

한국경제

주요 은행들, 최근 2년 새 중금리대출 규모 감소... 작년 기준 국민 99억원, 신한 1,049억원, 하나 446억원, 농협 13억원으로 감소
업계에서는 은행들의 실제 중금리대출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 제기... 사전공시된 상품 통해 나간 대출만 중금리대출로 분류... 향후 중금리대출 활성화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예상

은행, 핀테크 투자 벽 허문다... 은행법 개정안 7월에 '윤곽'

파이낸셜뉴스

은행법 개정안 초안, 이르면 7월에 나올 예정...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 핀테크 투자 벽 허무는 것으로 기본 방향 정해져... 금융위, 새 정부 첫해인 올해 반드시 개정안 마련 의지
건전성 저해 및 소비자 피해 우려 상황 아니면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입장... 올 10월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 유예기간 만료... 출자 업종 제한도 풀어야 한다는 입장

벌어진 인뱅 예대금리차... 공시 앞두고 '긴장'

데일리안

예대금리차 공시 속도 내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작년 말 예대금리차 모두 2.18%p로 전분기대비 각각 0.08%p, 0.17%p 상승
카카오뱅크는 1분기 실적의 대부분이 이자 마진이라는 평가... 주요 대출 고객이 중저신용자들이라 예대금리차 벌어진 수 밖에 없다는 입장

실손 청구 간소화법 또다시 발의... 심평원에 보험금 청구 위탁

서울경제

배진교 정의당 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발의했다고 발표... 심평원의 역할 대폭 확대... 금융위 지정 고시 서류 발급 요청 등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 가능
심평원 관리하에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취지... 원칙 벗어나는 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정보 악용 및 민영화 논란 가능성

'삼성화재 잡아라'... 손보사 장기보험 경쟁 '후끈'

데일리안

국내 15개 일반 종합 손보사, 작년 장기보험에서 벌어들인 원수보험료는 총 58조 8,345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
업계 1위 삼성화재 주춤하는 사이 2위권 손보사들의 맹추격 매서워지는 중... 그나마 성장을 꺾을 불 영역으로 주목받아 당분간 해당 시장 성장세는 지속될 것

증권사, 고액자산가 유치 경쟁 격화... 특화지점·맞춤서비스 강화

서울파이낸스

큰 손' 잡기 위한 증권사 간의 경쟁 치열... 특화 지점 개시 및 맞춤 서비스 강화 등 고액자산가들 유치하기 위한 WM 부문 경쟁력 강화 중
미래에셋증권, 판교에 자산운용특화점포 투자센터 출범... 한국투자증권 GWM 전담조직을 통해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중... 직·간접투자 관심 높아진 만큼 전문성 선보여...

금투업계, 마이데이터 춘추전국 시대 활짝

굿모닝경제

금융투자업계,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 전면 시행 맞아 인가 획득과 시장공략 사전작업 나서면서 마이데이터 시장 경쟁 치열해질 전망... AI 구축을 통한 WM 역량 확보
메리츠증권도 사업 진출 검토 중... 올해 하반기 이전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본인이 받은 증권사는 두 자리수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 로보어드바이저사와 손잡고 AI생태계 구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